

서울대 기독교 연합 2022 - 2
연합예배
2022.10.04 pm6
버들골 풍산마당

GUEST
MESSAGE
차성진 목사

에배 후 식교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의
KAKAOTALK | 서울대기독교연합
INSTAGRAM | @SNU_CHRISTIANUNION

교수 칼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구약의 열왕기서에는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두 인물이 반복적으로 언급된다.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이고 다른 한 사람은 솔로몬 이후 분열된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다. 대체로 남유다의 왕에 대해서는 다윗과 같이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는지를, 북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는 여로보암이 행한 죄에서 떠났는지를 기준으로 왕을 평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열왕기서의 기자는 다윗과 여로보암의 어떤 점을 주목하여 이를 후대 왕들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삼은 것일까? 그리고 이러한 잣대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각자의 삶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열왕기서에서는 다윗의 생애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이는 다윗이 헛 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왕상 15: 5).” 그가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고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켰다는 것이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다윗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다. 이에 비해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였다. 자신만 죄를 범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였다는 점이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요소 중 하나였다. 그의 길을 따른 후대 왕들에 대한 평가에서 이러한 점이 잘 드러난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왕하 15: 18).” 여로보암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켰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어떤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하고 자기만 범죄할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까지 범죄하게 하여 하나님의 노를 불러일으키고 종국에는 사망과 재앙의 근원이 된다. 그런 반면에 어떤 왕은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하나님께 돌이킴으로써 그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뿐 아니라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 선대 왕이 선을 행하였다고 그것이 후대 왕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악을 행하였다고 그 자녀가 그것을 그대로 따른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암 7: 8) 두고 재보시겠다고 말씀하신다. 다림줄은 벽을 쌓을 때 쌓는 담벽의 수직 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이다. 비뚤어진 담벽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모든 인생은 결국 누구냐 선악 간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열왕기서에는 하나님의 다림줄로 재 보았을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는 정직한 인물(왕상 22: 2)에 대한 기록이 있다. 그는 유다의 16대 왕이었던 요시야이다. 그의 생애는 이스라엘 역대 왕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평가를 받았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왕하 23: 25).”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할 만한 큰 계명을 (마 22: 37-40) 요시야 왕이 지켰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요시야 왕의 부친인 아몬 왕이나 조부인 므낫세 왕은 요시야와 달리 우상을 숭배하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던 인물들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인 요시야가 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걸었던 것은 놀라운 일인데 그의 어머니가 특별히 믿음으로 양육했다는 기록이 없는 것을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섭리라 할 수밖에 없다.

그의 행적이 어떠했기에 이와 같은 극찬을 받았던 것일까? 요시야는 여덟 살에 즉위하였는데 열여덟째 해 성전을 수리하게 하던 중 율법 책을 발견한다. 서기관 사반으로부터

율법 책에 기록된 말씀을 듣고 여호와 앞에 옷을 찢고 겸비하여 통곡한다. 그러고는 백성들을 소집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기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한다(왕하 23: 3).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모든 우상을 부수고 신당과 제단을 헐고 신당의 제사장들까지 제거한 후 언약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킨다. 요시야가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이켜 행한 일이 바로 우상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회복하는 일이었던 것이다.

요시야를 평가할 때 인용되었던 구절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부탁하신 명령을 떠올리게 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신 6: 4-5).” 또한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과도 연결된다. 예수님께서 어떤 율법 교사와 나눈 대화가 그것이다.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제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눅 10: 27-28).”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나 율법사에게 하신 말씀이나 동일한 말씀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신 것이다. 요시야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데 구원의 길이 있음을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십 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신 8: 2).”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대로 삼지 않으면 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삶이 되는 것이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받으셨던 시험은 이렇게 치우치기 쉬운 우리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당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도 늘 시험 앞에서 있다.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플 때 만나만을 생각하고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한다(신 8: 3). 물이 없어 목마를 때 하나님을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출 17: 7)” 의심하곤 한다. 세상을 향한 소욕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만 그를 섬기라”(신 6: 13)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세상에 속한 것에 얽매어 살아가기도 한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우리는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으로 기억되고 평가될 것인가? 하나님의 다림줄로 재어 보았을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롬 3: 10) 하신 말씀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자신의 허물과 불의를 절감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나는 여로보암의 죄악과 같이 세상의 신을 섬기는 자가 아닌가? 나는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하며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기를 힘쓰는 자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다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넘어졌던 것과 달리 시험을 이기셨고,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으로 우리 곁에 계신다(히 2: 18).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히 7: 25).”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오늘도 대제사장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민병곤 교수(국어교육)

개강예배

서울대기독교연합 개강예배가 10월 4일 월요일 저녁 6시에 서울대학교 버들골 풍산마당에서 열린다. 이번 개강예배의 말씀은 차성진 목사(엠마오연구소)가 담당한다. 주제는 “행복을 찾아서”이며 본문말씀은 로마서 7장 24절이다. 찬양팀 아이자야씩스티원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며 마친 후에는 식교제가 예정되어 있다.

주요 기사 안내

- 1면 교수칼럼 ... 민병곤 교수
- 2면 학생기자 취임사 ... 문예은 기자
- 2,3면 수련회 후기 ... 김수잔, 김명주, Dereje Regassa, 백유경
- 4면 학생기자의 글 ... 장동원 기자
- 5면 서기연 소식 ... 임찬송
대학촌 선교센터 개원 ... 이경건 편집인
- 6면 비전트립 후기 ... 손주혜
- 7면 종강예배 ... 정명현
- 8면 썸오애티 ... 문예은 기자

학생기자 취임사



안녕하세요, 이번 2022년도 2학기 개강호 - 제108호부터 '진리는 나의 빛' 기사를 맡게 된 산림과 학부 21학번 문예은입니다. 우선 대학 첫 학기를 무사히 마치고 여름방학을 보내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취임사에서 위 기사를 맡게 된 이유와 이를

가능하게 한 기도 응답과 말씀 등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기자 활동은 시니어 기자 중어중문학과 20학번 장동원 선배님의 권유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학부 입학 전까지 새 학기의 공부 목표만 세워봤지, 신앙을 성장시키는 기도 제목을 세우는 법에 무지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금년 학기 시작 전, 제가 세웠던 기도 제목은 '인생에서 크리스천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이번 학기는 주위가 크리스천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와 '기숙사 입소를 위해 4.0 이상의 좋은 성적이 필요합니다. 학점 관리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길 기도합니다.'였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욕심이 일부 섞여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교양 교과목 수업 중에 이루어주셨는데 얼마나 신실하게 채워주셨는지 놀람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에는 크게 대학영어와 논리학이 있습니다.

대학영어2: 말하기 수업에서는 팀 회의와 조별 발표를 하는 시간이 많았는데 같은 조에 기자 장동원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당신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합니까'가 토의 주제로 선정되었

습니다. 이때, 교회에 간다는 센세이션한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천 모임이 아닌데 교회와 관련된 내용을 비기독교인 사이에서 꺼낸다는 것 자체가 나를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저를 포함해 청년부가 3명이었던 교회에 출석하며 삼성 산하의 고등학교에서 크리스천 모임을 금지했던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크리스천 비율 1%, 신앙 불모지에서 자라 입학 전까지 신앙 공동체를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무엇인가 비신앙인에게 신앙에 관한 말을 하는 것에 대해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삭제하지 않고 있던 SNS 신앙 OT 게시글로 제가 이번 새내기 OT 조장이었다는 것이 아웃팅(?)되었고 선배님께서 자신을 서기연 내 '진리는 나의 빛' 기자(이하 진나빛)로 활동하고 있는 인기연 대표라고 소개하셨습니다. 당시엔, 수없이 들은 서울대의 수석어 'VERITAS Lux MEA'의 뜻이 '진리는 나의 빛'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첫인상부터 심상치 않은 분께서 맡고 계신 직책이라는 말을 들으니 진나빛 기자에 우선 관심이 생겼고, 기존에 학부 입학 전에도 글을 쓰는 것을 좋아하는 습관이 있어서 흥미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밥약을 한 뒤 자하연 근처로 돌아오던 중 선배님께서는 넌지시 기자와 글 쓰는 일에 관심이 있는지 질문하셨고, 그 이후부터 기자 활동을 맡을지 여부에 대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한 기자가 신문에 실리는 모든 글을 전부 작성하고 총괄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로드가 상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2학기의 우선순위를 필연적으로 바꿔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저의 글이 성경적 원리가 아닌 제 욕신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써져 다른 이에게 읽히면 어떻게 할까에 대해 계속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당시 천안에서 KTX로 통학하고 있었기에 이 직책을 체력적으로 제가 감당해낼 수 있을지, 중도 포기하진 않을까 여러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의 기도 후 2학기의 쉬는 시간을 조정하여 기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반쯤 주님께서 어떻게든 책임져주시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학기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신 분이시니까요. 논리학 강의장에서 70명가량의 사람 중 안면을 트게 된 유일한 분이 크리스천이라는 말을 듣고는 정말 곁을 기독교인으로 채워주십에 소름이 돋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를 결정하는 상황에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빌립보서 4장 6~7절 말씀을 두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진리는 나의 빛 100호 기념 문집을 읽으며 서기연의 역사와 기도 제목들, 그리고 진나빛 기자가 그 속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고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바쁜 일상 중 나누기 어려운 다양한 생각들을 다른 성도께 전달하는 소통의 창구라는 점입니다. 제 이름인 '예수님의 은혜'처럼 주님께 쓰임 받는 은혜의 통로가 되길 기도합니다. 처음 맡은 직책이기에 실수하는 일이 생길 지도 모르겠습니다. 필연 인간적인 감정과 걱정들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겠지만, 하지만 그때 완벽주의와 강박을 내려놓고 죄인 된 모습으로 말씀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빌 1:21)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를 포함한 이번 학기 서기연 지체들의 삶이 그리스도가 되길,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진정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문예은 학생기자(산림 21)

CCC 여름수련회 후기



들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여름 수련회에서 가장 좋았던 활동은 LTC(Leadership Training Class)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매주 교회를 다니고, 매년 수련회에 참여하며 인상 깊은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때의 감동은 사라지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는 저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LTC 초급과정을 수료하면서 추상적으로만 느껴지던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게 되고, 믿음을 통해 성령 충만을 얻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말씀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고 책으로 배우는 것 또한 느끼게 해줄 수 있음을 처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큐모(아침큐티모임)와 생활 순모임 모두 단체 신앙생활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평소 느끼던 생각들, 가지고 있던 고민을 같이 공유하면서 신앙적인 소통도 같이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혼자서 큐티를 하거나, 성경을 통독해보려 노력했었는데 며칠 하다가 그만두고, 다시 하다가 안하는 삶을 반복했었습니다. 짧은 여름 수련회 기간동안 사람들과 지내며 단체 큐티와 성경 읽기의 재미에 대해 깊게 알게 되었고, 수련회에 오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갔다 온 지 2달이 지난 지금, LTC, 아큐모, 생활 순모임 이외에도 다양한 여름 수련회 활동은 여전히 감사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야외 부스에서 다양한 선교단체, 교육신앙단체 등을 알게 되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손길이 많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마지막 날 서울대 CCC 부원들끼리 한 방에 모여 서로 수련회 후기를 말하는 시간도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수련회에 참가할 생각이 아예 없었는데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수련회를 온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몸소 느꼈고, 목사님 말씀에서 내가 깨닫지 못한 것들을 언급하시는 분들을 보며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3일이란 짧은 시간이었지만 가지 않았다면 느끼지 못했을 경험을 많이 했고, 다음 여름 수련회도 꼭 참여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김수잔(경영 22)

LDI 금식 수련회 후기



안녕하세요. 서울대에서 복음을 전하며 LDI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김명주라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 석사과정 중에 있습니다. 진나빛 신문에

이렇게 기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주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6월 말에 있었던 LDI 금식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이렇게 간증문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대면으로 진행되는 금식 수련회인데다가 공동체가 이 수련회를 위해 새벽기도회로 함께 중보했기 때문에 이번 수련회에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이번 수련회가 제게 더욱 의미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멘티들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캠퍼스 노방전도 중에 만난 sh, ys 자매와 신앙오터에서 만난 ye자매, 제주도에서 날아온 고등학생 ms 자매까지, 멘토로서 신경 써야 하는 부분도 많았지만 멘티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큰 기쁨이었

습니다. 자매들이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저도 잘 섬길 수 있도록 수련회 전 기도로 준비했는데요. 멘티들이 금식으로 인해 육체적으로는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모두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많은 깨달음과 은혜를 누리는 기도 응답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메시지 시간 설교자님께서서는 한 간증을 해주셨는데요.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계실 때, 큰 따님이 그 지역의 풍토병에 걸려 의사에게 사망선고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설교자님께서서는 딸 대신 12번이라도 좋으니 당신의 목숨을 가저가 달라고 기도하셨고, 이 과정을 통해서 아들을 구원하실 수 있음에도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아들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처절한 사랑을 목상하게 되셨다고 하세요. 사실이 간증은 제가 제자훈련을 받으며 여러 번 들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예수님의 처절하고 깊은 사랑에 대해 목상하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서, 그간 지었던 저의 죄가 부끄러웠습니다. 마음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시스템 속에서 일처럼 전도하며 왜 내게 양육의 고난, 학업의 고난을 허락하셨냐며 불평불만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가장 소중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잊은 채 살아간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에 찢겨 죽기까지 철저히 순종하심으로 사랑을 주셨는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저 이 정도는 해볼게요. 근데 이 건 안 할래요. 하고 싶지 않아요'라며 목을 꺾듯 하여 반쪽 순종, 불순종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다시 주와 복음을

위해 전도하고 양육하고 공부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 수련회 기도 제목 중 하나가 첫사랑과 첫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었는데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립니다.

비전함 간증과 5세대 간증을 통해서도 각자 속해 있는 곳의 복음화를 위해 진심인 자매님들의 모습을 보며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내가 사역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는 아니었고 저는 제 열매를 위해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체들이 열매 맺는 것과 비교하게 되거나 내 열정이 식으면 안 하고 말고 싶어지는 현상을 겪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다고 생각하니 지체들이 열매를 맺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서울대 영적 4세대라는 뚜렷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전도와 양육하는 것을 적용하겠습니다.

개강하는 새 학기 바쁜 일정들 가운데서도 항상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잃지 않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주님과 동행하는 새 학기가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주(한국어교육 석사과정)

My personal essay on Global Student Mission 2022



I became a Christian from an early age. I know fellowship is the relationship that we have with one another as Christians. It is based on the relationship we have with Jesus Christ that helps us to strike a fellowship. This relationship is inherited as Jesus becomes our Savior; God becomes our Father; and the church becomes our family. I am grateful that this fellowship has not been hampered in SNUIC, even during the pandemic. Hence, fellowshipping builds friendship and unity, and helps us to build God's kingdom.

In addition to this, at this GSM 2022 Conference, God reminded us that we are here for the highest calling. As a messenger given a mission, we must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s it counsels, teaches, and reminds us of everything we learned and works to give us the strength to bear the fruits of the Holy Spirit. I hope most of the attendees and the speakers are also blessed and gain another momentum that helps them to go beyond the difficulties.

The messages in each section of the conference were powerful and supported by personal practical hardships and the spiritual guidance that led them during difficult times. Especially the testimony of Prof. Ji Sun Lee touched me when she was scared to see herself, ashamed to see herself, and had a hard time accepting herself. The trauma didn't keep her away from God. She leaned on God, who helped her to gain the strength to stand on her feet. I learned that even though we pass through bad experiences, our focus shouldn't be diverted from God.

'The calling' – the theme of the conference clearly tells us we have a mission for the greatest calling. We go out, and stand on the highest mountain to claim for the LORD's kingdom. To do that, we should open our hearts for the Holy Spirit to dwell in us, and be obedient to apply the truth in our lives. The small group study and discussions were organized in such a way that we understood that and were guided by the Holy Spirit, trusting and leaning on Him as He makes our paths straight.

This conference is used as a platform that helps international students in all Korean universities to come to know one another, share Godly vision, and spread the Gospel as they return to their countries. As Jesus is coming back again, we live each day as we await His coming, and we need to teach the truth that we are commanded by the Holy Scripture.

Dereje Regassa(Computer Science, PhD candidate, SNU International Church)

SFC 대학생 대회 후기



저는 이번 여름 진행될 SFC 대학생 대회가 매우 기대되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이후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대규모 수련회에 참석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대형 수련회가 주는 찬양의 즐거움, 다양한 신앙인들을 만날 기회 등 지부 자체 수련회만으로는 경험할 수 없었던 특성들이 너무 그리웠고 기대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람과 관련된 부분만 기대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기대되는 것은 당연하게도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이었습니다. 학기 중에는 학업 등 세상일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산 경우도 많았고, 불신자들 사이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제가 달리 구별되는 것이 없이 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동안은 이러한 부담이 줄어

드는 방향이 되면 좀 더 신앙인으로서 저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수련회를 하면서 하나님과 저의 관계가 개선되고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의 신앙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수련회를 진행할 수 없게 되면서, 상관관계인지 인과관계인지 정확히 알기는 쉽지 않지만 수련회가 진행되지 않기 시작하던 시기와 저의 인생에서 신앙의 하락기가 시작하는 시기가 일치하였고 이를 언제 회복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방향이 대학교 2학년 1학기까지 지속되었고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의를 시작했습니다. 점점 하나님이 제 삶의 중요도 순위에서 밀려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하나님 없는 삶이 더 좋다는 결론까지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제 주변의 부모님과 교회 분들 그리고 SFC 운동원 등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 덕분에 저는 조금씩 하나님의 소중함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다시 저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저는 기쁘게 다음 학기를 살아갈 수 있을 힘을 얻고 싶다는 마음으로 수련회를 기다렸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수련회를 진행하게 되었지만

말씀을 들을 때까지만 해도 저한테 이번 수련회가 특별한 의미로 남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 저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저를 사랑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머리로 알 수 있었지만 직접 마음으로 느끼지는 못했는데,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으로 느낄 수 있게 되었고 이번 수련회 이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SFC 위원장도 맡는 등 직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쓸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이 있었고, 이번만 아니라 더 많은 그리스도인과의 만남의 자리에 참석하면서 이를 잊지 않고 계속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경험한 SFC 대학생 대회는 기대한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백유경(체육교육과 21)

학생기자의 글

체코 종교개혁 유적 탐방기



여행 중의 장동원 학생기자

이번 여름, 체코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아름다운 곳을 누비며 즐거운 추억만을 쌓고 와도 좋았겠지만, 하루 이들 일정을 더하여 종교개혁의 유적들을 찾아보면 더욱 의미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배움과 감동, 그리고 기도로 충만했던 여행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체코에서 방문했던 종교개혁 유적지들과 그곳에서 느낀 것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프라하, 안 후스의 종교개혁

사람들은 프라하를 낭만의 도시라고 합니다. 저도 프라하에 내려 첫날 밤 보았던 야경에 빠져들어 종교개혁 유적을 찾아보겠다는 원래의 계획을 까맣게 잊어버릴 뻔했습니다. 프라하의 이와 같은 낭만적인 경관은 14세기 카렐 황제 때부터 만들어진 것입니다. 도시를 내려다보는 몰다우강 건너편의 프라하 성, 그리고 성과 도시를 이어주는 카렐 다리가 카렐 황제 재위 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카렐 황제의 또 다른 큰 업적을 남겼는데, 바로 카렐 대학의 건립입니다.

카렐 대학은 알프스 이북 지역에 최초로 건립된 대학들 가운데 하나로, 이곳의 신학부에서는 종교개혁의 꿈을 키웁니다. 교회가 현실 정치와 재산에만 관심을 가지며 나날이 타락해갔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들과 로마에 각각 교황이 등장하며 정치적 혼란은 심해졌고 양쪽은 싸움 때문에 부족한 재정을 채우고자 면벌부를 팔았습니다. 이에 프라하 대학의 교수였던 안 후스는 프라하 대학 신학부와 베들레헴 예배당에서 체코 대중을 대상으로 강연합니다. 그는 교회와 성도는 오직 말씀에 의거해 살아가야 하며, 타락한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 이들의 재산 소유를 금지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타보르 종교개혁 전쟁박물관의 안 후스(좌)와 안 지슈카(우)



타보르의 안 지슈카

프라하 대학 신학부 건물도, 베들레헴 예배당도 프라하 도심 한가운데 있지만, 찾아가기는 어려웠습니다. 웅장한 높이를 자랑하며 화려하게 장식된 가톨릭, 유대교 등의 종교건축물과 달리 건물이 아담하고 소박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베들레헴 예배당은 채색 없는 흰색 석회로 이루어져 있어 알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오직 말씀, 오직 은총을 구하던 안 후스와 체코 기독교인들의 정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배당은 우리나라 교회와 비슷한 구조였습니다. 강단과 의자들이 있을 뿐, 성상이나 성화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안 후스가 살던 목사관이 베들레헴 예배당의 위층에 자리하고 있어 함께 둘러보았습니다. 벽겨겨리는 나무계단과 높지 않은 층고는 오히려 안 후스에 대한 존경을 불러일으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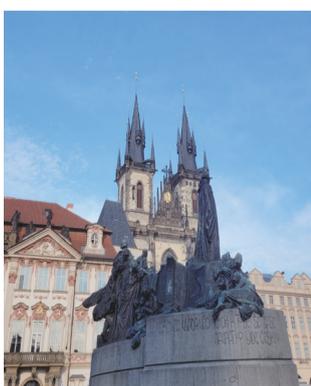
건물을 돌아다니니 현대에 새로 지은 기념물이 있습니다. 계단처럼 생긴 기념물에 해가 비치면 그 아래로 "ZA PRAVDU"라는 체코어가 등장합니다. "진리를 위하여" 또는 "진리를 향하여"라는 뜻으로 안 후스가 체코인들에게 남겼던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신실한 모든 체코인이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진리를 요구하십시오."

프라하 관광의 중심인 구시가 광장에는 안 후스와 그를 뒤따른 종교개혁자들의 동상이 있습니다. 동상 속 인물들은 고통받는 모습이지만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안 후스는 콘스탄츠에서 열린 공의회(1415)에 회부됩니다. 공의회는 그에게 온갖 조롱과 멸시를 퍼부으며 그를 화형에 처했지만, 안 후스는 단단히 죽음을 받아들이며 종교개혁의 불씨가 꺼지지 않을 것을 예고합니다. 동상 속 안 후스 뒤에 선 인물들과 우리에게 친숙한 마르틴 루터, 장 칼뱅 등이 바로 그들입니다.

타보르, 체코 기독교인들의 투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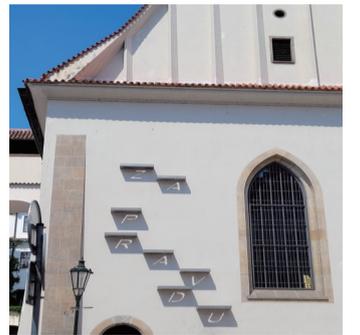
신성로마제국은 안 후스와 체코 민중들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습니다. 타락에 물든 채 종교개혁을 주장하는 이들을 사냥합니다. 끝내 이는 100년이 넘는 체코 종교개혁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100년간의 전쟁은 구약-신약 사이 시대 이스라엘 민족의 투쟁과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이 시대 이스라엘 민족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예비하며 신앙 활을 더 중시한 사람들과 다른 민족의 지배에서 벗어나 유대 민족이 자유를 얻어야 한다며 투쟁에 나선 사람들로 갈라졌습니다. 이들은 생각의 작은 차이, 출신과 배경 등에 따라 흩어지기도 하고 모이기도 하며 갈등과 분열에 빠졌습니다. 체코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후스의 주장을 어디까지 받아들일 것인지, 어떤 식으로 전례를 개혁할 것인지에 따라 체코의 개혁파 신도들은 여러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게다가 본격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게 되며 지배받고 있는 자신들의 상황이 이스라엘 민족과 비슷하다고 여겼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처럼 자신들도



프라하 구시가지 광장의 안 후스 동상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성로마제국은 로마제국이 이들을 분열된 체코의 개혁파 신도들을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그들은 전례 문제에 더 집중하던 이들과 타협하며, 체코 민족의 독립도 주장하던 이들을 탄압했습니다. 이에 신앙의 자유와 체코 민족의 독립을 모두 요구하던 이들은 신성로마제국의 탄압에 저항하며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마 7:24-25)"을 읽고 그들이 요새를 쌓을 "반석"을 찾아나섭니다. 그들이 찾은 반석이 바로 타보르였습니다.



프라하 베들레헴 예배당 벽면 장식

타보르는 플타바 강의 중상류에 놓인 바위 언덕에 있습니다. 강을 향해 서 있는 언덕이 천혜의 요새 역할을 합니다. 전쟁 전, 타보르는 상인들이 거쳐가는 작은 마을에 불과했지만, 종교개혁 전쟁을 이끌었던 장군 안 지슈카(1360~1424)의 지도하에 철옹성으로 변모합니다. 애꾸눈 장군으로 알려진 그는 당대 유럽 최고의 전술가로 독실한 신앙심과 말씀에서 배운 리더십을 바탕으로 이 도시와 개혁파들을 이끕니다. 그는 여러 방어 장치를 넣어 견고한 성벽을 짓게 했으며 반석을 파서 지하창고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농민군을 조직하던 과거의 투쟁 방식과 달리 화약 등 신무기 도입에 나서 새로운 전술을 펼치기도 합니다. 그의 혁신과 승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던 태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타보르 시 중앙 광장에 우뚝 서 있는 그의 동상 앞에 묵념하고, 하나님께서 제게도 그와 같은 지혜와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이후의 체코 종교개혁, 우리의 기도 제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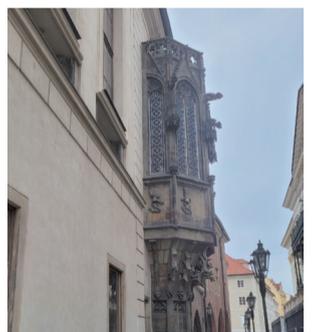


프라하 베들레헴 예배당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겼던 체코, 오늘날은 종교개혁의 흔적만 있을 뿐입니다. 이제는 무종교 인구의 비율이 유럽에서 가장 높은 국가 가운데 한 곳이며 개혁파의 후신 교단들의 성도를 전부 합하여도 가톨릭교도의 수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무종교 79.4%, 가톨릭 10.3%, 개신교 0.9%) 이와 같은 상황에는 여러 가지 역사적 요인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들을 분열시킨 신성로마제국의 통치가 있었습니다. 신성로마제국은 끔찍한 종교재판으로 개혁파 신도들을 탄압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수도사들을 앞세워 종교개혁과 같이 말씀에 충실하게, 또한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던 프라하의 카렐 대학 신학부를 가톨릭 사제 양성소로 바꾸어버립니다. 사람들의 눈을 현혹할 수 있는 거대하고 아름다운 바로크 양식의 성당을 여러 도시에 증축하여 자신들의 권위를 공고하게 하였습니다. 체코인에게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척 기만하기도 했습니다. 특정 형태의 전례는 허용하고, 다른 이들은 허락하지 않는 등, 이들의 신앙에 사사건건 개입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이들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다른 나라로 이주하게 됩니다.

1919년, 체코슬로바키아라는 이름으로 독립 국가가 들어선 후에는 새로운 문제에 맞닥뜨립니다. 민족이라는 이름 앞에 독일계가 많던 루터파 개신교인들과 체코 민족이 많던 체코 개혁파 신도들이 갈등을 빚었던 것입니다. 이에 끝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계 추방으로 루터파가 체코에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이 시대 체코 민족주의자들은 안 후스, 안 지슈카와 같은 종교개혁 지도자들을 신앙인이 아닌 민족의 지도자로 더 부각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사회주의 정권에서도 이어져, 체코인들이 종교개혁 전쟁을 민족 투쟁 정도로 이해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자"라는 외침이 시작된 땅이 이제 복음을 듣기 어려운 땅이 된 오늘의 상황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프라하 안 후스가 강의하던 신학부 건물

타보르의 종교개혁 전쟁 박물관에서는 위대한 승리들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슈카 장군의 지혜로운 전술, 체코 군인들의 용기 등이 패전할 것 같은 전투들을 끝내 이기게 한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체코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종교개혁 전쟁에서 승리를 맞출 수 있게 해주셨던 것은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혜도 용기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 때와 같은 열정으로 부흥이 일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 또한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 모두 체코에 복음이 다시 샘솟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장동원 학생기자(중어중문 19)

서울대 기독인 홈페이지(Ecclesha)를 제작하며



서울대 기독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기독인 홈페이지 제작에 참여하고 있는 데이터사이언스 대학원 석사과정 임찬송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독인 홈페이지가 나온다는 소식을 들어서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홈페이지 제작은 작년 말에 시작되어 올 하반기에 오픈할 계획으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서울대 복음화 사역에 보탬이 되길, 또 많은 기독인들이 이를 유용하게 사용하길 소망하며 제작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 지면에 글을 쓸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되어, 서울대 기독인 홈페이지

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교회와 캠퍼스에서 예배와 사역, 신앙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이러한 상황에서도 온라인 매체를 통한 사역과 예배, 기독교 콘텐츠 제작 등이 활성화된 덕분에 많은 분들이 위로와 공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보면서 온라인 매체를 통해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던 여러 교수님, 간사님, 학생들이 작년 12월 모였습니다. 남승호 교수님의 지도 아래 기독교수협의회에 지원을 받아 서울대 기독 공동체들의 연합 사역을 도울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홈페이지로 시작하여 이를 연합 사역 플랫폼으로 발전시켜나간다는 비전을 그렸습니다. 서울대 기독인이거나 서울대 복음화에 뜻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하고 함께 활동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하여 서로가 더 긴밀하게 한 몸이 되어가는 일에 기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하신 이유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홈페이지 제작을 시작하면서 여러 어려움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대 기독인 전반의 의견을 수렴하기 어려웠고, 주변에 피드백을 구했을 때 홈페이지에 대한 반응이 미지근하면 마음이 어려워지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홈페이지 제작 업체들에 문의해보았을 때, 원하는 조건과 우리의 비전에

적합한 곳을 찾기 어려웠고, '기독교' 공동체의 '연합' 홈페이지 개념이 생소하다며 제작 의뢰를 거절당한 적이 많았습니다. 노력만큼 진척이 잘되지 않으니 마음이 답답했고 고민은 늘어만 갔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고민과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남승호 교수님께서 기독 콘텐츠 제작 프로젝트에서 한 제작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비슷한 홈페이지 제작 경험이 있고 앞으로의 필요와 계획에 맞게 유지보수를 해줄 수 있는 분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홈페이지의 제작이 시작되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라는 찬양 가사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도 이미 하나님은 섬세하게 길을 마련해두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홈페이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주신 남승호 교수님, 장정주 교수님, 장정완 간사님, 김순민 간사님을 비롯하여, 다양한 좋은 아이디어를 내준 홍원의 형제, 장동원 형제, 필요한 순간에 관리자를 맡아준 이대희 형제, 이 모두가 있었기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또, 발 벗고 나서 현직 엔지니어를 소개해주고 현실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게 도와준 유인비 형제와 유익한 피드백을 준 주위 사람들, 좋은 아이디어로 홈페이지 공모전에 참여해준 많은 형제 자매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서울대 기독인을 대표하는 첫 홈페이지이니만큼,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당연히 결과물에 대한 부담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때로는 '내가 더 경험이 많고 실력이 풍부했다면'이라는 생각이 들곤 하지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심을 믿으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주셨던 비전대로 이 홈페이지가 서울대 기독인들이 자유와 사랑, 진리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으로까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서울대 기독인 홈페이지 이름인 '에클레샤(Ecclesha)'처럼, 서울대 기독인들과 기독 공동체들이 '하나의 교회'로 서게 될 때까지 기독인 여러분들의 꾸준한 관심과 참여, 그리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찬송(데이터사이언스 전공 석사과정)

대학촌 선교센터 개원

지난 9월 4일(일) 오후 3시 30분, 대학촌 선교센터 개원 감사 예배가 드려졌다. 대학촌 선교센터는 서울대 기독학생과 대학촌의 기독청년들을 그리스도께로 초대하는 열린 공간이다. 선교센터는 1994년 11월 발간된 "진리는 나의 빛" 제1호에 건축 계획이 실렸을 만큼 대학촌 선교의 숙원 사업이었다. 대학촌교회는 2020-2021년 선교센터 건립추진위원회의 활동과 2022년 3-4월의 40일 특별작정기도회 등을 거쳐 현재 선교센터의 위치와 모습을 확정하였고, 8월까지 이어진 인테리어 공사의 끝에 선교센터를 개원하였다. 약 30여 년 동안의 기도와 헌신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특별히 서울대학교회는 이번 선교센터의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위하여 1억 원을 현금한 바 있다.

대학촌 선교센터 개원 감사 예배는 대학촌교회 김인섭 장로의 사회와 박은석 집사의 찬양 인도로 시작했다. 서울대 기독동문들을 비롯한 약 70명의 참석자는 기독청년들을 위한 공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렸다. 대학촌교회 성기문 장로의 기도 이후, 전 담임 박형대 목사가 누가복음 14장 15-24절 본문으로 "꼭 차게 강권하라"라는 말씀을 전하였다. 축사는 대학촌교회 유은상 원로장로, 서울대 기독교수협의회 남승호 교수, 대학촌교회 전 담임 오성종 목사가 전하였다. 대학촌교회 김성현 장로의 인도로 2부 친교의 시간도 가졌다.

대학촌 선교센터는 여러 장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는 접근성이다. 선교센터는 서울 관악구 신림로 108 운용빌딩 4층에 위치하고 있다. 신성초등학교 버스 정류장이자 5516 등의 버스 종점의 바로 옆에 위치해 있으며, 서울대학교 셔틀버스 탑승장이나 얼마 전 개통한 신림선 경전철 서울대벤처타운역과의 거리도 약 300m에 불과하다. 둘째는 개방성이다. 선교센터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탁 트인 오픈 스페이스를 맞이하게 된다. 오픈 스페이스는 봉

사자들의 헌신으로 카페 형식으로 운영되며, 이곳에서 청년들은 공부를 하거나, 전도와 교제를 하거나, 예배와 기도를 드릴 수 있다. 셋째는 다양성이다. 선교센터에는 오픈 스페이스 외에도 완벽한 방음 시설을 구비한 찬양 연습실, 스터디룸이나 상담실, 전도 공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2개의 방, 골방 기도실, 남녀 구분된 화장실이 있다.

이러한 장점들을 기반으로 대학촌 선교센터의 활용도는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대학촌 선교센터는 과/단대 기도모임, 선교단체 모임, 찬양 연습, 세미나 등을 위하여 두루 활용될 수 있다. 9월 4일 개원한 선교센터에서는 이미 기독청년들의 신앙서적 스터디가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서울대학교회, 서울대 기독인연합, 학부모기도회를 비롯한 다양한 주체들이 사용할 예정이다.

대학촌 선교센터는 9월 한 달 동안의 시범 운영 기간을 거친다. 오픈 스페이스는 무료 다과가 제공되는 스터디 카페의 형식으로 운영되며, 동시에 상담실, 다목적실, 기도실 등은 사전 예약 하에 사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운영 수칙과 방침은 앞으로 변경 및 추가될 예정이다. 선교센터 사용을 원하는 서울대 기독학생이나 대학촌의 기독청년들은 대학촌선교회 양현숙 선교사(010-9265-3627)를 통해 공간 예약을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교센터를 통해 서울대와 대학촌의 청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교제와 유익을 누리게 되길 소망한다.

비전트립 소감문 하나님은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 2022년 요르단 비전트립을 되돌아보며

작년 12월쯤 서울대 기독교수협의회에서 요르단 비전트립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였습니다. 2022년 1학기는 매우 바쁠 것을 예상했지만 코로나-19 기간 동안 침체되었던 저의 신앙생활에 리프레시가 필요할 것 같아 일단 '될 대로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비전트립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관악 캠퍼스에서 교수님과 학생들이 모여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주 요르단 및 선교와 관련된 선생님과 사역자분들을 초대하여 말씀을 전해 듣고 함께 기도하며 천천히 비전트립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갔던 선교를 준비했던 것에 비하면 많이 미흡했기에 우리가 정말 요르단에 갈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2022년 8월 14일 오후, 교수님 한 분과 7명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 총8명으로 구성된 비전트립팀은 요르단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인천공항에 모였습니다. 비전트립을 떠나기 전까지 바쁜 일상을 사느라 비전트립에 대해 큰 기대도, 걱정도 없이 '진짜 가는구나' 딱이 정도의 마음으로 요르단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카타르의 도하 공항을 거쳐 요르단 쿨 알리아 국제공항에 도착하니 비전트립 기간동안 저희를 담당해주실 선교사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선교사님과 인사를 나누고 후, 선교사님께서 지부장으로 계신 센터에 도착하여 첫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은 우리는 모두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시며 이 정체성을 기억하며 나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로서 요르단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것일까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하는 의문과 기대감을 품고 비전트립을 시작하였습니다.

둘째 날에는 자르카 지역의 나사렛 교회를 방문하여 난민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구강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아픔이 많은 아이들일 것이라 생각하여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오히려 아이들의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모

습에 저희가 더 많은 에너지를 얻은 시간이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나사렛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여러 난민 가정을 방문하여 대화를 통해 그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무슬림이 다수인 요르단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참 쉽지않아 보였습니다. 크리스천은 어느 직종에서나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몸이 아파도 가난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제게 "병원에는 갈 수 없고 약을 먹어도 낫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간호학과 학생으로서 의학적 지식은 많이 쌓아왔지만 의료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부족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저의 비전에 조금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넷째 날에는 마다바 지역의 필라델피아 교회에 방문하여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사역자 및 스텝들은 우리의 방문을 너무나도 기뻐하시며 환대해주셨습니다. 우리의 방문이 너무 힘이 된다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이 교회에 힘이 되기 위해 앞으로도 기도로 함께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여러 사역들을 직접 보며 요르단 땅에서 많은 사람을 통해 계속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후에는 느보산에 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광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특별한 경험을 통해 우리는 성경이 신화 같은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해매고 있는 우리를 부르셔서 약속의 땅의 실재를 보여주시며 이제 그만 나와 함께하지 않겠냐고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뜨겁게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선교사님 가정들과 함께하는 연

합 예배, 붉은 사막 와디럼에서의 캠프파이어 예배, 마지막 파송 예배 등 모든 일정을 겪으며 우리 팀 한명 한명의 입에서 간증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저는 와디럼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각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던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새겨주신 말씀은 이사야 51:6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 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 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 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정말 제 눈앞의 노을은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어두운 밤이 오듯,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만이 영원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비전트립의 모든 일정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깨닫지 못한 채 요르단에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님이 첫날 주신 말씀처럼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로 훈련 시키고자 요르단으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요르단에서는 여호와의 군대라는 정체성을 갖게 하시고 오합지졸이었던 우리 팀을 하나로 뭉치셨습니다. 이제 일상에 돌아와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여호와의 군대로 살아가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로서 기도만큼 강력한 무기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우리 팀은 한국에 돌아와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매일 밤 요르단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다시 바쁜 일상으로 돌아가겠지만 요르단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여호와의 군대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손주혜(간호 18)



1. 왕의 대로 앞에서 여호와의 군대로 맞서 싸우고자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하였습니다. -김수민



2. 요르단 영혼들의 순수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상엽



3. 광야에서 묵상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언어학과 김지영



4. 와디럼 사막에서 다같이 기도하고 음식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명현



5. 느보산에 올라 가나안을 바라보며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따라가겠다 결단하는 예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홍혜원



6. 현지 교회를 방문하여 예배드리며 그곳을 향한 애정을 품게 되었습니다. -김주영



7. 연합 예배 후 맛있는 현지 음식을 먹으며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수민



8. 난민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구강교육을 진행하였는데, 다들 재밌게 참여해주어 더 즐겁게 교육할 수 있었습니다. -손주혜



9. 난민 어린이들이 구강교육 시간에 우리 치아에 좋은 음식과 좋지 않은 음식에 대한 퀴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었습니다. -홍혜원



10. 현지에서 하게 될 경험에 대한 기대를 품고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여행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여행이 되었습니다. -김주영



11. 요르단에 가고자 마음을 정하고 우리는 함께 요르단과 난민에 관한 주님 메시지를 듣고 주님 마음 부어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남승호 교수

소망과 회복의 예배, 그리고 기대 - 2022년 1학기 종강예배를 회고하며

터널의 끝에는 출구가 있고 겨울의 끝에는 봄이 찾아오듯, 계속될 것만 같던 코로나 국면이 끝난 캠퍼스에는 다시금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먼지만 폴폴 날리던 강의실에 학생들이 들어서고, 학교 곳곳마다 사람들의 담소가 오가고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알던 이전의 모습으로 느리지만 조금씩, 그리고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서울대의 기독인들에게도 새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녹음이 우거지기 시작한 5월 말, 약 2년 8개월 만에 서기연 연합예배가 대면으로 드러진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기대감에 부풀어 올랐었습니다. 신입생 시절이었던 2019년 가을, 아이자야씩스티윈과 함께했던 부흥사경회에 참석한 후 처음 드리게 되는 대면예배였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차지한 지난 2년은 예배는 고사하고 일상이 속히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팬데믹의 시기에 서기연의 중앙위원과 대표로 섬겼던 저로서는 대면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송출했던 비대면 예배를 준비하면서 받은 은혜도 있었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한 데 울려 퍼지는 예배를 드리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늘 마음 한편에 남았습니다. 그렇기에 예배를 사모하는 모두가 함께 모이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다른 한구석에 도사리고 있던 우려는 예배에 대한 기대감을 가렸습니 다. 이 우려의 정체는 예배하는 사람이 얼마나 올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서기연을 섬기는 동안 서울대에 속한 여러 기독인 공동체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면으로 활동들을 진행하지 못해 생긴 문제점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함께 모일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보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단과대 및 과기독모임이 약화되고 선교단체가 침체되는 현실을 마주하며, 부끄럽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코로나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신앙의 선배님들께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현실이라는 벽을 바라볼 때면 회의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맴돌았습니다. 마치 안개가 등대의 불빛을 가리듯 희망의 불씨는 점점 희미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예배 당일 연합기도회에 참석하여 예배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과연 사람들이 예배에 나올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무너졌다고 생각했던 학교의 기독 공동체가 되살아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녁 늦게 수업을 마친 후 예배 장소였던 학생회관 라운지로 향하며 저는 그곳이 절반만 채워져도 성공적이겠다는 비관적인 인식을 품은 채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교만하기 이를 데가 없지만, 빨리 가서 텅 비어있을 공간을 메워야겠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초조하고 불안한 심정으로 라운지에 입장한 저는 그런데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반 정도만 채워질 것 같다고 생각했던 예배당의 좌석이 사람들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 장관(壯觀)을 본 순간 "네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아"라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기독인 공동체 섬기며 열매가 보이지 않음에 실망했던 제게 주님께서서는 비대면 시대에도 변함없이 일하고 계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당신을 따르는 칠천의 사람들이 남아 있음을 알려주셨을 때 그가 힘을 얻은 것처럼, 저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모인 사람들의 열기가 가득함을 바라보고 나서야 위안을 얻었습니다.

이번 1학기 종강예배는 제 안에 있던 우려의 장막이 벗겨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며 이 땅에서 당신을 찾는 사람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재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서기연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가실 일을 믿음의 눈을 들어 보기를 노력하고자 합니다. <기대>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통해 계획하신 일들을 한마음으로 기대하며 나아가간다면, 주께서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각 지체들을 향한 축복(1)



각 지체들을 향한 축복(2)



각 지체들을 향한 축복(3)



각 지체들을 향한 축복



교수님들의 축복송 - 물댄동산



모임 시간 중 사회기연 한 컷



설교시간



수원대 기독인 연합을 빛낸 분



예배 시작 전 (학생회관 라운지 내)



예배 후 모임시간(1)



예배 후 모임시간(2)



합심 기도시간



찬양 (불을 내려주소서) -1



찬양 (불을 내려주소서)-2

점오엠티

서기연 점오 MT(20~22.5학번 MT)가 금년 8월 22에서 23일, 미래를 사는 교회(하남시)에서 진행됐다. 코로나 시국 이후 첫 대면 MT로 20학번부터 22.5학번 세내기에 이르기까지 총 23명의 지체가 참석하였다. '하나님의 부르심' (롬11:29)을 중심으로 레크레이션, 찬양 및 간증/기도, 식교제와 나눔 등 1박 2일을 함께 하며 '연합'의 중요성을 알고,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대학 생활'을 주제로

이경건 편집인(전 2015년도 서기연 대표)의 간증이 있었고, QT와 1년 1독을 비롯하여 대학생할 중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 노하우를 전수받는 기회를 누렸다. 2학기 개강 이전, 영육 간 즐거움을 누리며 MT를 마쳤다.

편집부



레크레이션 1



레크레이션 2



레크레이션 시작



레크레이션 3



레크레이션 4



레크레이션-라이어게임



마지막 날 단체사진



성경 OX퀴즈 우승



이경건 편집인의 간증



자유 사진



자유시간 사진



자유시간 사진



조별 나눔_야식 시간



조별 아이스브레이킹



자유시간-새벽



찬양시간